

# 계란이어서 소시지 공포... '찬밥'된 '김밥'

“계란하고 햄(소시지)이 빠지면 그게 김밥입니까...”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식당. 김 위에 흰 쌀밥을 깔고 있던 식당주인 부부는 “10년 넘는 세월동안 지금까지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며 설움을 토로했다. 단체주문을 비롯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김밥 하루 매출이 15만~20만원에서 5만원대로 급감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살충제 계란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산 소시지 등 가공육을 통한 E형 간염 감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계란과 소시지류를 주재료로 삼는 김밥전문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밥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김밥전문점은 약 280여개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들 모두 잇달아 터진 먹거리 안전문제로 사상 최악의 악재에 시달리고



**먹거리 불신에 매출 급감  
시금치·김 등 재료값도 상승  
전문점 “손님 발길 뚝 끊겨”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 가중**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와 요식업계 중에서도 김밥전문점이 ‘먹거리 포비아’(공포증)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위기다.

김밥전문점 관계자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때 계란을 빼달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간염 소시지 문제까지 터지면서 매출 자체가 급감했다”며 “7~10월이 성수기인데 8월 중순부터 시작된 판매 부진이 10월까지 이어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계란으로 만든 ‘지단’과 소시지 등 햄류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간염 소시지’ 파동으로 소시지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김밥은 두 재료가 모두 들어간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음식 1순위가 됐다.

특히, 김밥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라는 인식과 소규모 점포인 탓에 제과·제빵 등 다른 음식에 비해 ‘식재료 관리가 부실할 것 같다’는 불신이 확산하면

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폭염과 폭우 피해로 채솟값이 폭등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8일 시금치(1kg) 소매가는 1만4803원으로 평년(1만1825원)보다 25.18% 올랐고, 오이(10개)도 1만1098원으로 평년(8308원)에 비해 33.58% 상승했다.

김밥의 필수 재료인 김(1속)도 8979원으로 평년(7492원)보다 19.85% 오르는 등 약재에 악재가 겹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것도 어려운 데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먹거리에 대한 불신에 애꿎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한 불안감 조성은 자체해결 바람다”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64.74 (-5.56)
-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1)
- ↑ 코스닥 653.96 (+1.04)
- ↑ 환율 (USD) 1126.40원 (+6.30)



## 광주은행 섬마을 청소년과 금융캠프

완도 중학생 7명 초청 경제교육·문화체험 기회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28일과 29일 1박2일로 완도 금일중학교 생일분교 학생 7명을 광주은행 본점에 초대, 금융감독원 최윤근 광주지원장과 광주은행 정순자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금융캠프(사 진)’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서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금융캠프’는 경제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섬지역 청소년들의 금융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 금일중학교 생일분교 학생들은 광주은행 본점 금융박물관에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과 직접 실생

활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함께 배우고, 금융체험 전시실에서 화폐변천사와 세계화폐이야기, 진로 교육 등의 체험활동으로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물놀이체험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임숙경 광주은행 사회공헌실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이 부족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인자위 출범 4년째 산업인력 1만3천명 양성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지역 인력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가 지역 산업 인력양성사업의 거점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9일 광주상위에 따르면 광주인자위는 그동안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 공급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올해로 출범 4년째를 맞는 광주인자위는 지난해까지 300개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1만2717명을 양성, 기업체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립 초기에는 훈련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에 주력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을 고려한 일자리창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해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지역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호남 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등 3개 공동훈련센터와 6개 파트너훈련센터를 통해 올해 취업예정자 921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89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으로 선정돼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정부 출범이후 떠오르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의 필수 조건인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문화 확산을 주요업으로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 효성 ‘미래 먹거리’ 수소차 인프라 주도권 잡는다

울산 충전소 우선협상자 선정 정부 발주 5곳중 4곳 수주 현대차 모델 발표에 사업 탄력

효성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수소 충전 인프라스트러처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잇따라 수소 충전소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한 번 충전으로 580km 주행이 가능한 수소전기차 모델을 발표하는 등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당초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내년 2월 개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즌에 맞춰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지난 17일 세계 최초로 2세대 수소차를 전격 공개했다. 또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박람회(CES) 2018’에서 차세대 수소차의 이름을 공개하고 완전 자율주행은 물론 탑승자와 차가 상호작용하는 ‘HMI’ 기술을 통해 궁극의 미래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효성의 수소충전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국내 수소시장에 선두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은 이미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지난 16일 울산시의 수소충전소 3기 건설을 위한 최종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울산 3개소 수소충전소는 일일 360kg급으로 하루에 수소전기차 60대와 수소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최대 용량의 수소



효성이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에 설치한 수소전기차 전용의 700바(Bar)급 수소 충전시스템. <효성 제공>

충전소가 구축될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효성은 울산시와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설비 설계·제작해 내년 3월 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효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수소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전용 700바(Bar)급 충전 시스템을 공급했다. 700바급 수소충전기는 기존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고압 용기를 사용해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효성 관계자는 “울산 3개소 수소충전소를 수주함으로써 올해 환경부 예산으로 발주된 5개 수소충전소 가운데 4개를 효성이

수주했다”며 “이로써 국내 수소시장의 강자로 선두적인 위치에 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상설 추진단’에 합류하며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효성 관계자는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동시에 수소시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국은행 추석 中企 지원 150억원

지역 중소기업 최대 3억원...부동산·주점업 등은 제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양수)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9월4일부터 29일까지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및 수협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무도장, 미용업 등을 제외한 업종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억원) 이내로 금융기관 대출액의 50% 이내다.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현재 연 0.75%)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1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지역 업체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운전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